

신년사

‘평화, 행복에 힘쓰는 사회복지인이 됩시다’



고치환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귀 가족과 하시는 사역을 위에 금년에는 더욱 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1994년 76세로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350년간의 흑백갈등, 인종분규를 끝내고 2013년 12월 5일 서거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은 평화 없이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념도 평화와 행복입니다.

친애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금년에는 꼭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화합과 용서로 증오심(憎惡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증오를 털어 버리지 않고서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들 영혼은 여전히 갇혀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

다고 하였습니다. 증오심은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씨앗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을 죽이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면 내가 산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서(聖書)에서는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새해 찬란히 떠오르며 온 누리를 밝히는 해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해는 세상을 밝히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해를 바라보면서 언(言), 행(行)을 삼가하여 회장으로서의 품격(品格)을 지니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우리는 말할때에도 평화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때에도 평화를 생각하면서 품위(品位)를 지켜 나아갑시다. 톨스토이는 “그의 언어에 대한 태도 속에 그의 품위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될 수 있어도 언어로 인한 상처는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는 해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선인(善人)에게나 악인(惡人)에게나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추어 줍니다. 저는 해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 유익한 회장이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인 여러분, 우리는 이(利)를 구할 때 의(義)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인은 이(利)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의(義)와 선(善)을 추구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셋째는 해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해가 한 발자국 지구에서 물러선다면, 또는 해가 한 발자국 지구 앞으로 다가 선다면 지구인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를 바라보면서 원칙을 지키고 반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우리는 정직과 투명성을 세상에 보여 드리고 존경받는 사회복지인이 됩시다.

친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 여러분,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실천하여 더 아름다운 평화의 섬을 만들어 갑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상복 터져'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홍보단 평가회 진행
- 사회복지소식 4·5면
동제주복지관 실버스타 연극단 공연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축제 개최
- 오피니언 6면
칼럼 '시론·기고'
- 특집 7면
2013년도 제주시 드림스타트사업 토론회
- 기획 8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9)

초원의 말처럼

東甫 김길웅

시인·수필가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날마다 내리는 희망이
우리에게
존재이유였다.

빛을 바라는 해맑은 응시의 눈
밝음을 향한 몸짓으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넘었다.

아, 빛으로 우리 앞에 열린
감오년 새해

말의 해가 밝아 옴으로 서기 瑞氣
온몸에 받으며
저 정겨운 눈길들
등 따스운 온기
절정으로 우리를 멀리 올리는
손 있네.

이 시대의 화두
가슴 가득 '복지'를 끌어안고
힘 없는 주행 走行
초원의 말처럼 달려리.



2014 갑오년(甲午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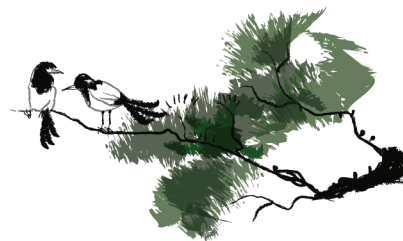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과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4. 1. 10 (금) 11:00~13: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 행사내용: 회장 이·취임식
참가자 교례
오찬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상복 터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국장 한재신)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결과 10개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주민복지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분야(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분야(주민복지과), 사회보장시스템 운영분야(주민복지과),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활동터전 운영분야(여성가족과)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개 분야에서 기관표창과 40백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됐다.

위탁기관 복지시설의 표창도 이어져 수놓음지역자활센터가 사업실적 평가 및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제주시니어클럽, 애서원이 우수시설로 선정돼 표창 및 860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으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살피고 소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독거노인 등에 성금전달

서귀포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 12일 다문화가족 및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양병식 부시장을 비롯해 이왈종 화백, 이상구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진심 서귀포시간호봉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36가구의 생계비와 난방유 티켓을 전달했다.

우선 이왈종 화백이 올해 다문화가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해준 20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다문화가정 중 24가구를 선정해 가정형편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또 서귀포시간호봉사단(단장 김진심)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난방유 티켓(360만 원 상당)을 12가구에 전달했다.



“김장으로 따뜻한 사랑 나뉘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

가 주최하고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과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이 후원한 ‘2013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

제주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소



제주 장애인 기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23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창업보육실 8실이 갖춰져 있으며, 입주한 기업에 장애인 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정보 및 기술, 훈련 등 종합적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사업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비롯해 판로지원, 자금조달 지원, 사무기기 및 집기류를 지원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확대충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20여명이며, 선발인원 중 일정비율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분 모집

할 계획이며,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이들을 배려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부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은 오는 3월 22일에 치러지며, 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초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교통약자 특별차량, 27대로 증차운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차량을 22대에서 5대 증편된 27대로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 2010년 5대의 특별차량 운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대가 운영됐으며, 지난해 10월 말 현재 3,273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고충해소는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내 특별차량 13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대상은 지체·시각·뇌병변 장애가 있는 1~2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산부, 도외 및 외국인 장애인이다.

특별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전화(756-8277)해 하루 전 사전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한라생협

그룹홈 아동 후원

제주 한라생협은 디딤돌그룹홈(원장 송일심) 아동들에게 유명 브랜드 점퍼와 컴퓨터, 식품류 등을 후원했다. 제주 한라생협은 디딤돌 그룹홈과 결연을 맺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행복한 복지미래계획을 위한 사회복지워크숍을 지난달 27일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오 제주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살피며 그늘지고 소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살기좋은 복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손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4년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안 모색과 민관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돼 지난해 지역복지 현황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강사를 초빙해 ‘제3기(2015~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복지계획에 대한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해요” 12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상추 5kg ▲금강축산유통=육류 708kg ▲김치원=김치 30kg, 세탁세제 239개 ▲남녕고등학교5회동창회=쌀 180kg ▲대혁물산=고등어살 100kg ▲동원F&B제주=식재료 2400개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639모, 콩나물 53봉 ▲이든이네=멸치 17.2kg, 당면 14kg ▲이명구씨=쌀 300kg ▲제성상회=베이컨 40kg ▲제주보리촌=보리빵 73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김치 40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존샘봉사회=김치 120kg ▲(주)왕성전력=된장 210kg, 고추장 70kg, 간장 120개, 휴지 66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269봉 ▲현승물산=비타민 545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11월 후원금 현황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910,000	910,000
난치병환아후원	30,000	0
자원봉사후원	4,130,000	4,130,000
복지사업후원	15,580,000	15,930,000
푸드마켓후원	2,995,000	7,257,6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홍보단 평가회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달 20일 대학생 자원봉사자 11명으로 구성된 '초록우산 대학생 홍보단 평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대학생 홍보단은 지난 11월까지 관공지 및 공연장 등 도내 곳곳에서 초록우산을 알리며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

인을 진행했다.

대학생 홍보단 활동을 통해 총 53명의 정기 후원자가 발굴됐으며, 이 후원금은 월 71만원씩 아프리카 및 도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쓰여진다.

경윤호 관장은 “연말에 다양한 후원금 전달과 모금행사가 있지만, 대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후원자를 개발하고 나눔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은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제주

여성, 아동·보육, 다문화, 가족복지 분야 2,455억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여성과 아동, 보육, 다문화,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2455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복지 분야는 지난해보다 41.6%, 36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이 책정됐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지원에 8억 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운영을 위해 6억 원, 상담소 7개소 운영 6억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자금 6억 원,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해 5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1027백만 원을,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및 WISET 센터에 68백만 원, 도·행정시 단위 여성단체를 통한 여성역량 강화사업에 2508백만 원 등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 및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별 공동사업장 5개소에 90백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을 지원한다.

아동보육 복지분야는 작년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2233억 원이 책정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160억 원, 가정양육수당 170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1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3억 원, 어린이집 지원 4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56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비 128억 원,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95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정위탁,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금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가정위탁, 시설아동 용돈도 월 1.5만 원~2.5만 원에서 월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신규로 설치 운영돼 시설 아동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한 22억 원이 책정됐다.

제주시 예산 40%

‘복지’에 투입

제주시 전체 예산의 40%인 3764억 원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된다.

제주시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분야, 보육, 보건 등 복지분야에 37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복지예산 3223억 원보다 16.7%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보육분야가 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 877억 원, 기초생활분야에 546억 원, 장애인복지 441억 원, 보건 125억 원, 저출산 10억 원의 순이다.

올해 제주시 복지 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5.5%인상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등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매월 2만원에서 96800원까지 지급되던 지원금이 올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10만 원~20만원으로 차등지급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개선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요양원 개보수에 140백만원, 삼양동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차량구입 및 장비보강으로 57백만 원, 애월읍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차량구입으로 1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차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와 시설 현대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요양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3월부터 변경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

올해 3월부터 제주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전면 변경되고 이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4일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담당자, 행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기부식품제공사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은 2013년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 지원이 미흡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2013년에 선정된 푸

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자는 올 2월까지 기부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1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시를 통해 이용자를 추천 받은 후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기부식품을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와 푸드뱅크 등은 기존 기부식품 이용자에 대해 3개월여 간의 이용자 변경 안내 등을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식품을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기부식품을 선택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주태고원, 어르신 가을나들이

제주태고원(원장 김부자)은 한울간병회 후원으로 지난 11월 1일에 어르신 27명과 한울간병회 봉사자 20명과 함께 매직아일랜드와 세계자연유산센터로 가을나들이를 떠났다.

이들은 다함께 공연도 보고 건강에 좋은 오리백숙을 먹으며, 시설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원내 생활의 무료함을 해소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 나들이 행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난 11월 27일 피학대어르신들과 함께 2박3일 나들이 프로그램 ‘함께해서 좋아요, 행복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용인 한국민속촌 관광을 비롯해 온양온천 체험, 여의도 유람선 관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소방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 2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제광원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또한 연말연시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2014년 아동복지교사 모집

서귀포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올 12월 19일까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할 아동복지교사 2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기준은 만19세 이상인 자 중 올 1월 1일 기준 실업자이면서 성범죄 사실 및 전염성 질환이 없고 분야별 세부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모집분야는 ▲아동지도 ▲영

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지도 4개 분야로 근무기간은 2014. 1. 1~12. 31까지이며 서귀포시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전일제 기준 주25시간(1일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월 보수는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 월 96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760-6447)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이용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원 신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 8대 시설에 3929백만 원(국비 1965, 지방비 1965)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요양시설 2개소 신축을 위해 2725백만 원, 6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1204백만 원의 사업비

를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201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경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효성노인요양원’ (정원 80명)에 1362백만 원, 도련동 소재 ‘도련노인요양원’ (정원 80명)에 1362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라동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증개축에 299백만 원, 외도동 제주요양원 증개축에 647백만 원, 애월읍 주

동제주복지관 실버스타 연극단 공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실버스타 연극단'은 지난달 17일 '불효자는 읍니다'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평균나이 83세로 구성된 국내 최고령 극단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 실버스타 연극단은 '불효자는

읍니다'라는 스토리로 공연을 개최했다.

정식 오디션을 거쳐 9개월 동안 연습해 무대에 올린 이

번 공연은 지난달 17일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유료공연으로 열려 200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고령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대사를 외우기 위해 항상 머리맡에 대본을 두고 생활하시고,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은 대사를 통째로 외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등 어르신들의 열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으며, 이날 거둔 수익금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어르신들의 뜻하고 긍정적인 기부행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홍주일 관장은 "실버스타연극단 사업을 통해 제주도내 지역주민들과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앞으로도 노인의 긍정적인 여가활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실버스타 연극단의 이번 '불효자는 읍니다' 공연은 지난 2011년 '미안해'에 이어 2012년 '못잊어'에 이어 3회째다.

“점자명함 만드세요”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인쇄된 명함을 점자도서관에 제출하면, 성명과 기관명, 직위,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가 점자로 명함에 새겨진다.

점자 명함 만들기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100매 이상의 명함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점자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 (064-723-7777)

삼다라이온스클럽 푸드마켓에 성금 기탁



삼다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균)은 지난 22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지난해에 이어 성금 100만 원 기탁했다.

삼다라이온스클럽은 푸드마켓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다.

소리통한 나눔축제 제주지역 아동 참여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소속 아동들의 소리를 통한 나눔 축제에 제주지역 아동들이 참가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NH아트홀에서 열린 나눔축제에 더불어숲, 1318해피존더불어숲, 대정골, 대화, 동흥, 빛과소금,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제주소리모아'라는 공연팀명으로 참가했다.

아동 및 교사 78명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국회의원당과 롯데월드 체험, 남산타워 및 인사동 견학도 함께 진행했다.

소/식/마/당

사랑드림사업단, 동아리활동 개최



저소득 취약계층 입원환자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랑드림사업단은 도내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 등에 파견돼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 큰영 해안경승지 주변 산책을 비롯해 허브동산 족욕체험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동료 간의 친밀감 형성 및 화합의 장이 됐다.

도 장애인부모회, 가족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지난달 1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도내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사업보고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장애인부모회가 1년동안 활동했던 사업들을 공유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정혜재활원, 케이크 만들기 진행



서귀포 플러스마트 베이커리(대표 김대유)는 정혜재활원 개원 8주년을 맞아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귀포 플러스마트 베이커리 김대유 대표는 “이번 후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사업을 펼쳐갈 것”이라며 차후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어울림터, 문학강좌 참여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지난달 6~31일까지 (사)한국문학 서귀포지부가 주관하는 2013장애인을 위한 문학강좌에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참가했다.

이날 강좌는 문학작품 구상을 위한 장애인들의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해 창작 작품 낭송 및 전시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뮤지컬 공연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달 14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발표회를 가졌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각색한 이날 뮤지컬은 토요일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온 뮤지컬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려 아동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잔치 진행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임수경)는 지난달 9일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 평범한 행복 만들기'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수산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에월읍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목욕 나들이, 우도 나들이, 9개 지역 경로당 경로잔치 등을 진행했다.

道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축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성인

장애인 새움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군자교실을 비롯해 데코파주공예, 인형극동아리, 동화창작교실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날 평생학습 축제는 사회 참여 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및 성취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어 온 새움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장이 됐다.

이번 축제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제주관광대학 일본어학과에서 일본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을 진행했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김치나눔 행사 가져

제주특별자치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후원하는 '맛있는 김치, 산타가 왔다'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가 지난달 12일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제주도 지점 직원,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동 50여명이 참석해 21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작은 손, 큰 사랑 희망릴레이 진행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작은 손, 큰 사랑 희망릴레이'라는 주제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나의 몸은 소중한'이라는 노래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줬으며, 인형극 관람을 통해 성폭력이나 학대 등 위험한 상황을 구별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대상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DC,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용 특장차량 전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는 지난달 24일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곳에 복지용 특장차량을 전달했다.

특장차량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협회, 평안전문요양원, 위미에덴요양원,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뽕엘이다.

김한욱 이사장은 이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주도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JDC가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우수 노인자원봉사클럽 이미지 현판지원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양창진)에서 운영 중인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도내 60개 노인자원봉사클럽을 대상으로 올 한해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 클럽에게 이미지 현판을 지원해 지역 내에서 봉사클럽이 지속적인 역할과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엘린, 숙박분야 표창패 수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대표 한봉금)에서 운영하는 호텔 엘린은 지난달 19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 추진평가 보고회'에서 숙박분야 표창패를 받는 성과를 이뤘다.

호텔 엘린은 지난 2012년 제주시에 실시한 숙박 위생 점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객실을 일부 마련해 제주를 찾는 장애인 등의 관광향유권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道 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8일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획사업 '함께해요 힐링'을 진행했다.



道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백만)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을 찾아 도배, 장판교체, 천장보수, 부엌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영순 고문이 대통령상을, 통신인명구호봉사회 송형열 부회장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道 자원봉사대회 개최

자원봉사로 도민이 하나되는 만남, 20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달 12일 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지난 한해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하고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시회와 특별강연, 공연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남서울대학교 이성철 교수의

혜정원,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17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에게 '인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권의 정의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 권리 및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재밌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여우와 두루미 예화를 인용해 나와 다르다는 것



의 의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또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해 장애인의 권리확보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칼럼

또 한해를 보내며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한해의 끝과 시작을 반복하는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조화는, 이제 시작을 향한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양상한 가로수는 엄동설한의 길목에 삭풍에 떨고, 황량한 들판은 스산하고 삭막하다. 마지막 잎사귀처럼 덩그러니 벽에 걸린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은 이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시절을 마감하려 한다.

삭막한 현실, 일상을 옥죄어

저물어가는 한 해의 추운겨울, 까맣게 긴 밤, 내면에 충돌하는 상념이 술렁인다. 뒤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인간의 유한성에 되새기는 연륜(年輪)때문일까. 지난날의 아쉬움과 미련의 반주인가. 내면깊이 각인된 추억의 관념이 새로워진다.

돌아보면, 젊음을 넘어선 초로

세대, 시공을 가르며 바쁘게 달려온 지난날, 여유롭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애환과 좌절, 환희와 보람은 어느덧 추억으로 점철된다. 농경시대의 끝자락에서 미래를 담금질하던 근대화의 주역, 궁핍하던 그 시절을 극복하며 살아온 넉넉지 못하던 세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고 오직 자식에게는 베풀며 헌신하는 바보세대.

나의 유년시절은 빈곤탈피를 가장 소원하던 궁핍하던 시대였다. 그래도 내일을 향한 청운의 꿈을 안고, 소중한 추억을 아로새기던 시절. 메마르지 않은 인정, 풍부한 감성, 인보상조의 미덕이 꽃피던 원초적 공동체사회였다. 컴퓨터와 첨단과학으로 촉발된 급속한 문명의 발달은 근대화를 넘어 글로벌 정보시대를 열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일상은 편해졌지만, 삭막한 현실은 현대인의 내면을 옥죄다. 부의 편중, 부족한 일자리, 자식들의 교육, 준비하지 못한 노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들이 어찌 한둘뿐이겠는가. 현대인은 긴장된 경쟁사회의 복잡다단한 일상에 풍요속의 빈곤,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친다. 스트레스, 우울증, 민중속의 고독은 현실도피를 충동질한다.

부족한 기초학문과 문화지체로 문명의 발달에 대응치 못하는 유물론적 세태는 황금만능주의 병폐를 낳았다.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요악인가. 유심(唯心)이 유물(唯物)에 못 미치는 문화지체 현상에 기인하는 건 아닐까. 튼튼한 기초과학의 바탕 위에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가져야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연말연시가 우울하고 겨울은 더 춥다. 그나마 확충되는 사회복지, 훈훈한 나눔과 봉사정신이 있어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그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행정, 가진 자들, 아니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때다.

지금 이 시각부터 무엇보다도 정도의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가진 자나 상류층의 일탈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내년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는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는 발걸음 더 빨라지기를 기대한다.

시론

노력을 통해 행복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제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 기상과 활동성이 강한 기운을 지닌 말의 해로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매진해 나간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주어진 삶이 버겁다고 체념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도전과 노력을 통해 개척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제주시는 시전체 예산의 36.4%에 해당하는 3223억여 원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시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3764억 원을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분야에 546억 원, 저출산극복을 위해 10억 원, 어르신 등 노인복지에 877억 원, 장애인복지에 441억 원, 어린이 보육에 9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의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생계비가 5.5%인상되어 신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여 복지혜택을 향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셋째이후 자녀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금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국가 건설 위해 스스로 나서야

노인복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되면서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노인일자리아업 확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강화사업도 확대 추진합니다. 보육분야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평가인증 활성화,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 공직자 1계좌 갖기운동을 확산하고 착한가게 배가운동을 추진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민간 복지자원을 활성화해나가게 됩니다. 제주시가 한 해 전체예산의 40%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절반정도가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2년전과 비교했을 때 5%가 더 늘었고 여기에 기초생활 복지수혜자가 줄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일 할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복지지원금으로 나약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립과 자활 의지가 결여된 사회는 미래발전 가능성을 퇴보시킬 우려를 낳게 됩니다. 제주시정이 지향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복지사회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복지사회는 스스로 나아지려는 의지가 충만하고 일을 통해 삶을 가꾸어 나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아무쪼록 갑오년 새해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정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고

‘제주 3.0 의미’ 공공·민간·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허철훈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담당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시민과 공유하여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시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시민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변하고 복지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사례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사례관리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복과 사각지대 또는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

고 조정해 나가는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의 효과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필수항목이다.

모든 자원은 유한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배분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 자원 관리를 위해 공공사례관리팀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발적으로 배분되었던 복지 자원과 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단위에서 자원을 통합적으로 배분하

고 관리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현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내 나눔사업을 공동 지원하며 발굴된 자원에 대해 민간기관의 나눔사업 대상자를 연계하면 협력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공적 권한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역할이 민간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방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의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에 공공과 민간기관, 주민까지 연계하는 구조는 촘촘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2013년도 제주시 드림스타트사업 토론회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만족도 ‘굿’



▲지난달 2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드림스타트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시가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드림스타트사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한라대학교 홍연숙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 같이 밝히며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존 사후대처적인 서비스 체계를 탈피하고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사업은 2008년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전국 181개소가 운영했으며, 2013년에는 21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제주시 드림스타트센터는 2012년에는 851명이 참가했으며, 21종의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날 홍 교수팀이 조사한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욕구조사’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133명과 경험 없는 아동 327명 등 505명을 추출해 1대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1.2%의 응답자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1.4%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45.2%가 ‘내용이 재미있어서’를 꼽았으며, ‘재능을 키울 수 있어서’와 ‘내가 하고 싶어서’가 각각 24.0%, 17.3%로 나타났다. 반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9.1%의 학생들이 꼽은 이유는 ‘재미가 없다(52.8%)’와 ‘부모나 교사에게 의한 강제참여(23.1%)’로 나타나 흥미를 유발시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드러났다.

가장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학습(22.71%)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예체능(18.38%), 영양교육과 요리교실(16.18%), 보충학습(13.67%) 순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제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증진방안으로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아동의 학습능력에 따른 개별학습프로그램 운영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드림스타트 사례요원의 전문

성 및 충분한 인력 확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 ▲소외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노력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통합사례관리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아동은 취약가정이 원인
가족 맞춤 프로그램 필요해

토론자로 나선 김명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소장은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에선 공무원 3~4명과 사례관리자 5명 가량 필요하지만 현재 공무원 2명, 사례관리자 3명이 300명에 달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왔으나 좀 더 많은 참여자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강화, 가족 문화체험과 아동프로그램의 부모참여를 통한 가족유대강화 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드림스타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도시보다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보조금

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제주특별자치도 이정필 지역아동센터지원단장은 “조사사업 분석결과 88.4%가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선 영유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취약아동은 취약한 가정이 원인이기 때문에 가족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등을 통한 산모 및 영아건강관리,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통해 학대발생 고위험 대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된다면 아동의 안전보호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이니만큼 낙인 발생을 감안해 ▲사회적무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사회 환원효과 등 긍정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드림스타트 사업이 예방적, 조기개입의 원칙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9) - '우리고장 사랑하기' 특집 I

동문시장에서 정을 나누다



▲새해를 맞이한 몽생기자단은 제주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2014년 1월에는 “제주전통 재래시장”을 주제로 몽생이 기자단이 제주동문재래시장을 찾아갔다.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을 떠올린다. 요즘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 홈쇼핑에 우리 고장의 전통시장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

다. 2014년 1월호를 준비하면서 우리 몽생이 기자단은 정과 웃음이 가득한 동문시장을 찾아가보았다.

사실 우리 몽생이 기자단도 동문시장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조차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가는 것이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문시장을 방문하고 온 우리들의 결론은 동문시장이 훨씬 즐겁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우리고장의 보물같은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소 불친절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동문시장 내의 상인들은 우리 몽생이 기자단들에게 함박웃음 가득 맞이해 주었다.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농수산물물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동문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여 우리 동문재래시장의 소박한 정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고장 사람들은 생각만큼 동문재래시장을 많이 찾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한 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몽생이 기자단에 찾아간 동문재래시장은 단순히 장만 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즐거움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고장사람들이 먼저 우리 전통재래시장을 찾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도 했다.

그래서 몽생이 기자단에서 “동문시장SONG”을 제작해 보았다. 의외로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었고, 우리를 뿌듯하게 바라보시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고장의 전통시장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주역이기도 하기에 이번 영상제작은 좀 더 우리에게 특별한 취재이기도 했다.

이번 설 명절 준비는 우리 전통재래시장에서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몽생이 기자단에서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10대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1월부터 3월 까지 마련했습니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⑥

전과기록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법 법률홍닥터

전과기록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되어 벌금 5만 원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 이러한 전과기록을 일명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여 한 사람을 낙인찍는 용도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

런데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과기록에 남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과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위와 같이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전과기록에 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법 제2조 제2호, 제3호)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를 전제로 하는데(법 제2조 제5호) 즉결심판 대상자의 경우 수사자료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법 제5조 제

1항 제1호),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결국 위 사례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5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게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있나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2012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지난 7월 보도자료와 함께 이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경매·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위로 배당되는 ‘미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켰다.

둘째, 임대차기간 중 발생하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 2298번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국민들이 표준계약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